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5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기후변화대응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Column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와 노력



Interview

지속가능발전의 시작은 사람중심으로 바뀌는 노력부터!



IDI 소식



인천시 "2025 인천도시 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지난 5월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도시기본 계획시민공청회'가 열렸다...

Zoom 人



어느새 10년, 연구원을 걱정하는 중진(重鎭)된, 마음만은 훌쩍한 김종형 박사
가만히 있으면 강인한 인상이지만, 웃으면 동네아저씨 같이 편안하고 친근...

Zoom INcheon



송림로_인천교 가는 길
송림로는 짜리재길이 끝나는 배다리사거리에서 경인철도 굴다리 밑을 지나 ...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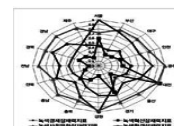
유럽 최고의 환경도시, 스웨덴 벅쇼
유럽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벅쇼市는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

IDI 연구



지속가능발전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녹색성장론은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지...

인천지표



우리나라와 인천의 녹색성장지표
지난 십년 동안 (1999~2009) 녹색성장 개념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와 노력

오 수 집 ·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민선5기 인천시정이 펼쳐지면서 그 이전까지의 무분별한 개발위주 정책과 그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이 중단되고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이라는 세 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속가능발전 체제 구축과 정책이 인천시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탓인지, 각종 사업에 대한 논란 속에 이제 갓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인천의 경우 이미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정신과 가치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도시이다. 인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의제 21(Agenda 21)'을 충실하고 풍부하게 실천해온 것이다.

시장의 정치적 지향점에 좌우되기보다는 국제기구의 합의와 권고에 따라 행정-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온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활동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인천산업단지포럼, 인천지속가능발전포럼과 같은 분야별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체를 낳는 데도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형성에도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사에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고,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발전 노력과도 끊임없이 연계되고 있다.

인천이 이미 유치한 국제기구인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아태사무소(UN ESCAP)나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 OSD), 그리고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RCE) 인천센터 역시 그간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축적된 결과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유엔녹색기후기금(UN GCF)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제 인천은 '동북아 중심도시'라는 비전의 핵심적인 성격, 그리고 이를 위한 '미래가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 6월, 각국 정상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 대표단이 다시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를 개최하게 된다. Rio+20 회의라고 부르는 이 회의의 두 가지 주제는 ①지속가능발전과 빈곤 근절이라는 맥락에서의 녹색경제(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와, ②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틀(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마련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확정했던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보고서)가 담았던 빈곤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용량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핵심적인 메시지에 비춰볼 때, 전 세계가 다시금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해보자는 소위 '녹색성장(green growth)'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가치를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녹색경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의 진척도를 재고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는 지속가능발전을 확고한 '미래가치'로 천명하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아태사무소,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 그리고 유엔녹색기후기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동북아 중심도시'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거듭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갈수록 취약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장운영의 중심 가치로 내세워야 하고, 원초에서부터 경제, 평화, 교육 등 어떤 부분의 가치라도 포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시작은 사람중심으로 바뀌는 노력부터!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5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속가능발전의 시작은 사람중심으로 바뀌는 노력부터!

이번 70호 아프리에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며 공무원과 주민 누구나 함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민하고 도움을 나누기를 희망하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만났다. 지난 3월 20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 비전을 선포한 부평구가 인천광역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어떤 계획과 각오를 품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홍미영 부평구청장

Q. 지난 3월 20일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전에 비해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행정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예산집행권을 상실하거나 파산내지는 그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도 2011년에 공무원 봉급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위기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생존전략이 무엇인가를 고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 전국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작성하고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선포식 이후에는 새로운 시책의 도입, 조례제정, 예산의 편성 등 각 분야에서 행정을 전개해 나갈 때 예전처럼 구청장이나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과연 이 정책이 지속가능하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중요한 안건은 지속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 그룹,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 부평구 공무원들의 생각이 물질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해졌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Q. 부평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서너 단어로 요약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부평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요약하면,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동참하고 더불어 사는 부평구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평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장애인인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인구 역시 전국 상위 수준이어서,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57%에 달합니다. 또한 녹지가 부족한 콘크리트 구도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에 취약하여 지난 2년간 큰 비 피해를 입기도 했고, 40여 곳에 달하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은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가동하여 경제성장과 환경, 사회통합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선진 미래부평의 꿈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Q.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 앞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새싹의 소망을 담은 희망나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거나 인상적이었던 소망을 몇 개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머물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것은 부평구가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출범시켰다 해도 구청장이나 관련 공무원들만 열심히 하려고 해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으며,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모두가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을 염원하고 꿈꿀 때 비로소 그 꿈이 달성되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사람과 환경이 모두 공존하며 사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선두에 선 부평구의 선도적인 발걸음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이 분은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토목공사식 경제발전에 치우치면서 환경이나 사회적 소득재분배를 등한시하면 결국 환경도 망치고 사회적 갈등만 키워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우섭 남구청장님이 “앞서가는 부평이 지역을 바뀌어서 중앙을 바꾸는 선봉이 되어주시기를...”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앞서가는 부평의 지속가능 발전행정이 잘 정착되고 성과를 이뤄 지방과 중앙의 행정체계를 바꾸는 선봉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Q. 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유념하고 계시고 극복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급한 결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한다면 황금알을 낳을 거위의 배를 자르는 격이 되므로 욕심내지 않고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부평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굴포천 상류지역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의 해소가 시급하므로 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갈등조정관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리의 리더가 앞장서기보다는 무리의 구성원들이 순환하며 협력의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더 멀리 날 수 있는 기러기 대형처럼, 부평주민들과 보다 먼 미래를 향해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부평구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현과 실천에 어떤 의미라고 보시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화해내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부평구와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도 심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고, 미국도 유럽의 금융위기에서 비껴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의 주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재정적자가 급증하자 무려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놔 빈곤층의 의료지원 축소, 학교의 폐교와 수업일수 감소 등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10개 도시가 이미 파산했으며, LA와

뉴욕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복지비용 증가, 재정적자를 무시한 과시성 축제나 토목공사 등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치르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스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흥청거리다가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은 이처럼 급변하는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최적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재정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평구가 각종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시의 중장기 재정여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홀로 설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부평구에서는 며칠 뒤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될 'RIO+20' 회의와 부대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과 성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차기 핵심과제로 선언했듯이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RIO+20'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각국 지자체와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2012 ICLEI 총회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RIO+20'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Q.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하면 꾸리찌바가 생각납니다. 10여년 전에 이미 환경도시로 알려진 브라질의 꾸리찌바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구경을 이끄시면서 꾸리찌바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셨거나 그 때의 시사점이 참고가 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인천시의원이던 2000년 8월에 꾸리찌바를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꾸리찌바가 유엔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알려졌습니다. 관심있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각계인사들이 모여서 꾸리찌바 연수팀을 꾸렸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사전준비를 했고, 또한 각계가 모였기에 연수과정은 적극적이며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홍수조절을 위하여 도심 내에 조성한 공원, 치안과 도서관 기능을 합친 지혜의 등대, 지역농산물과 재활용품을 바꾸어주는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프로그램, 구도심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보행자전용 장미의 거리와 버스전용차로 등등 통합적이며 창의적인 발상으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실현해나가는 꾸리찌바가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작년 영상을 통해 다시 접했던 꾸리찌바는, 급성장하고 있는 후루다오와 같은 중국 도시들과는 달리, 여전히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깃든 도시였습니다. 또한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와 대중교통운송공사 등의 전문가들은 예산을 최소로 투자하면서 도시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도시를 안전하게 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다목적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자 하고, 부평역 인근을 비롯한 보행권 향상을 위한 고민을 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 나아가 어두운 도시의 이미지를 밝은 가족친화도시의 이미지로 바꾸어야 하는 현재의 부평구 상황은 꾸리찌바의 노력과 성공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제3세계 국가의 제3의 도시였던 꾸리찌바. 선진국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발전경로를 찾았지요. 우리 부평구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과 가치를 우리 방식으로 녹여내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대담/기록

: 조 경 두(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번 70호 아트리에에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며 공무원과 주민 누구나 함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민하고 도움을 나누기를 희망하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만났다. 지난 3월 20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 비전을 선포한 부평구가 인천광역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어떤 계획과 각오를 품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5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 “2025 인천도시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 인천시 “2025 인천도시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지난 5월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마련된 것.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의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 6부도심에서 3주핵 4부핵 6발전축으로 변경했다.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화로의 재편을 위해 동인천, 구월, 부평을 3주핵으로 하고, 송도, 영종, 청라, 검단을 4부핵으로 정했다. 인구지표는 당초 2025 계획인구 370만명에서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하여 2015년 295만명, 2020년 310만명, 2025년 340만명으로 축소 조정했다.

가구당 인구는 현재 2.65에서 2.50인으로 바꿨다. 고용율은 59.4%에서 65.5%로, 대중교통분담율은 52.3%에서 57.0%로, 1인당 공원면적은 8.9㎡에서 11.3㎡로, 4년제 대학은 9곳에서 15곳으로 확장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시가화용지는 기존 293.1㎢보다 10.4㎢가 감소한 282.7㎢로, 시가화에정용지는 개발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144.5㎢에서 124.7㎢로 19.8㎢를 축소해 보전용지는 959.2㎢에서 1,031.9㎢로 72.7㎢가 늘어나게 된다.

공원·녹지면적도 계양산의 산림휴양공원 및 역사공원, 용현공원 등이 신설되고, 1인당 공원면적이 8.9㎡에서 11.3㎡로 증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휴식 및 여가공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통계획은 광역교통망으로 남북 3축, 동서 4축의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인천-충청간도로와 한중해저터널 구성 등이 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도시내 간선도로는 남북 4축 및 동서 6축의 격자형 도로망을 남북 4축 동서 9축으로 확대하여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도시내 이동시간을 30분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철도망은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노선 및 인천신항 인입철도, 도시철도 2호선, 도시순환철도, 청라지구신교통, 월미모노레일, 송도 주안지선 등의 일부 노선변경이 계획 되었다. 서구 경서진 일원의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해 경인아라뱃길 및 제2의관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경서진 조성, 경인마리나, 낙조공원, 청라 복합쇼핑몰, 화훼단지 등과 연계하는 종합상업계획안을 마련했다. 계양산 주변은 계양산성 역사공원 신설, 계양산 북서면의 산림휴양공원, 수목원, 휴양림 조성 등과 함께 기존취락지 중심의 테마마을 조성방안 등이 제시됐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상은 동시간 지역단절로 인한 도시문제 해소방안으로 가좌C 및 도화C의 입체화, 축도확장 및 방음벽 철거, 주요도로와의 평면교차로 설치 등 교통개선방안과 함께, 인천 2호선 및 서울 7호선의 환승역인 석남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및 수봉공원 일원의 친환경 댕개공원 설치, 인천 2호선 역세권의 상업용지 신설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인천C ~ 가좌C 구간 4개 역사 주변지역에 5만3천㎡를 상업용도로 변경하고 역사와 역사간 고속도로 주변 30만㎡ 구간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역세권 중심의 상업기능 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부평대로 등 13곳을 테마별 특화가로 조성 대상으로 선정해 상업지역은 융적용 상향,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밀도 상향을 통한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차별화된 중심가도로 육성하여 서비스산업 등 도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천시는 향후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보완한 후 오는 6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7~8월 관계행정기관 협의,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확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개소식 및 세미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4월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개소식과 함께 “인문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의 탐구”라는 주제로 <제1회 도시인문학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민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발위주의 도시정책과 급격한 산업화 등이 낳은 도시문제를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현상적 차원의 접근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의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 우리 연구원에 신설된 인천도시인문학센터는 인천의 고유자산을 도시인문학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를 축적 및 콘텐츠화 하여, 인천의 고유성을 반영한 창의적 도시 정책과 비전을 생산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개소식 이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광운대 민유기 교수가 ‘프랑스 도시사회 이론과 도시사 연구’란 주제로 “도시의 문명의 공간적 집약이자 축소판이다”며 “개발독재 아래 지속돼온 ‘토건국가’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리 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의 모습은 그 당시 사회·경제 체제를 반영한다”며 “현재 인천에서는 민간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도시사회이론과 도시사 연구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향후



센터의 도시인문학 연구방법론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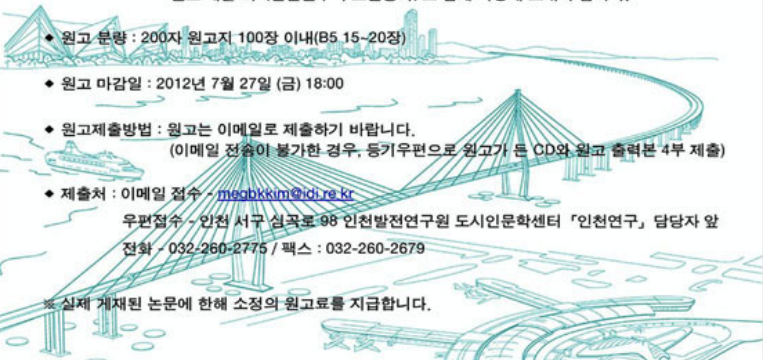


인천발전연구원
http://www.idi.re.kr

제6호 학술지 인천연구 일반연구(자유공모) 원고모집

- ◆ 모집원고 종류 : <도시재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주제의 인천과 관련된 논문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기고된 논문은 다시 기고할 수 없음)
- ◆ 원고작성 방법 : 원고는 필히 「인천연구」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 제출 시 <인천연구 투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 ◆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00장 이내(B5 15~20장)
- ◆ 원고 마감일 : 2012년 7월 27일 (금) 18:00
- ◆ 원고제출방법 :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메일 전송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든 CD와 원고 출력본 4부 제출)
- ◆ 제출처 : 이메일 접수 - meobkkim@idi.re.kr
우편접수 - 인천 서구 싯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인문학센터 「인천연구」 담당자 앞
전화 - 032-260-2775 / 팩스 : 032-260-2679

※ 실제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지난 5월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마련된 것.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5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어느새 10년, 연구원을 걱정하는 중진(重鎭)된, 마음만은 훌쩍한 김종형 박사

5월에 만난 idi people

어느새 10년, 연구원을 걱정하는 중진(重鎭)된, 마음만은 훌쩍한 김/종/형 박사

“아프리에 올해, Zoom 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러 갑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강인한 인상이지만, 웃으면 동네아저씨 같이 편안하고 친근해 보이는 도시기반연구부 김종형 박사. 연구원 입사 9년차로, 순서로 볼 때 조상운 박사와 함께 가장 중간급 연구진이 되었다. 조 박사와는 입사 동기이자 대학 동기로 인연이 깊다. 김종형 박사는 초등학교 때 단거리 100m 학교 대표 육상선수로 활약했다. 장래가 촉망되는 올림픽 꿈나무로 자랄 수 있었으나 그 당시만 해도 운동선수는 밥벌이가 되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선택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학부 때는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군대를 제대하고는 선배들의 조언에 힘입어, 숫자와 친한 적성을 살려 교통을 전공하게 됐다. 대학원을 졸업하고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3년간 근무했고, 기회가 돼서 2003년 4월에 인발연에 들어와 8개월간 위촉으로 일하다 처음으로 위촉연구원이 정식 연구원이 되는 장본인이 되었다. 그렇게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작년에는 연구년을 갖게 되었다. 논문 쓰고, 책 읽고, 어깨 재수술하고, 재활하는 데 시간을 보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 의지들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읽은 책 중에 특별히 정민 교수가 쓴 '자식경영법'을 추천했는데, 다산 정약용선생의 공부법을 정리한 책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부했는지, 그의 학문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 책이라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도 하고, 황금기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지금은 도시기반연구부지만) 교통실이 커지고, 연구원도 커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왜 인천은 인천일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낼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면, 부산이나 대구 등의 일도 가지고 와서 보란 듯 해내고, 그렇게 경쟁력을 가진 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과 바람이 동시에 있었다. 그렇지만 지자체 연구원이 갖는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 그래도 과거 10년에 비해서는 인천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이미지 제고도 이루어진 건 확실하다고 느낀다. 수도권 3개 지자체 연구원 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부듯하다.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자체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인천은 그저 캐스팅 보트 역할만 했다면, 인천이 교통 쪽에서 볼 때 자기부상열차나 공항 등 시범사업들의 경우, 인천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고, 타도시와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연구원의 변화를 볼 때는 아쉬움이 크다. 외부적인 상황들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예전에 비해 사람들 간의 정이 메마른 느낌이다. 비단 회식자리가 아니라도 모임 기회가 많지 않고, 모인



해도 웬지 기계적인 느낌이 든다. 직원 수가 많이 줄었거나 사람들이 많이 바뀌거나 한 것도 아니고 조직체계도 비슷한데, 사람들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못하다. 일전에 모 신문에서 동경대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읽었다. 연구자들이 한가하게 앉아있거나 여유를 갖는 자제를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정형화된 사람이 아니라 늘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연봉도 세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쓴 사람도 서울대 교수인데, 서울대도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요즘 연구원들이 물건 찍듯이 보고서만 찍어내고, 보고서를 못 만들면 도태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 각박해지는 것 같다.



연봉제로 전환된 시점부터 동료들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 평가받기 싫어 만남들만 많아지고, 사무처나 연구기획팀이 관리자적인 입장이 되니까 과거에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가 어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연구원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사무처, 연구기획팀, 임원진 등)은 연구원이라는 곳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므로, 관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관리상 어쩔 수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연구원은 기본적인 속성이 연구개발인 만큼 변화와 개혁이 생명력이고, 이것은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관리 영역에서도 같이 따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구 과제 또한 실용적인 정책과제에만 쏠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원의 역량을 정체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일 년에 한 과제 정도는 기초적이고 실험적인 과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연구원에 몸담을 수 있는 기간이 15년 남짓 남은 것 같은데, 교통 관련 이론을 계속 배우고 익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론이 아닌 기존의 이론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과제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김 박사는 매일 새벽 네 시에 일어나 30, 40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과음한 다음날도 어김없이 일어나 운동을 한다. 엄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4, 5시간 수면이 평생 습관이 된 것. 평소 연구원에서 애주가로 소문난 바, 소주 3병은 거뜬한데, 매일 하는 새벽 운동이 건강을 지켜주는 듯싶다. 단지, 술을 많이 마셔서 살 빠지는 속도보다 찌는 속도가 빠르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래도 20년 후에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배우 안성기처럼 늙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설령 안성기 같은 비주얼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재밌고, 유쾌한 분으로, 누구보다 마음만은 훌쩍한 김종형 박사님로 남아주시기를 바라본다.

- interviewer :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 글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가만히 있으면 강인한 인상이지만, 웃으면 동네아저씨 같이 편안하고 친근해 보이는 도시기반연구부 김종형 박사. 연구원 입사 9년차로, 순서로 볼 때 조상문 박사와 함께 가장 중간급 연구진이 되었다. 조 박사와는 입사 동기이자 대학 동기로 인연이 깊다.

송림로_인천교 가는 길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5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길 이야기 5

松林路

인천교 가는 길

글 / 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 / 석중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송림로는 찌리재길이 끝나는 배다리사거리에서 경인철도 굴다리 밑을 지나 배다리삼거리 송림오거리와 송림삼거리, 궁현사거리를 지나 서구 가좌동으로 가는 장고개길과 만나며 끝난다. 송림로의 출발지점인 배다리사거리를 지나는 연도에는 오른쪽으로 창영동 현책방거리가 있고, 왼쪽으로는 포목점이 즐비한 중앙시장이 있다. 도로 아래는 전통 공예품 거리로 조성된 배다리 지하상가지만 활기가 없다. 공예품은 전통문화 거리나 널리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업종인데, 유동인구도 많지 않은 사각지대에 배치한 것이 실책이었다. 이 상가를 살리려면 중앙시장과 배다리 현책방거리를 연계하여 쇼핑객을 모을 수 있는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배다리 삼거리에서 왼쪽 편에는 송림초등학교가 있다. 화도진 공원 쪽으로 향하는 화도진로가 시작되는 곳이다. 화도진로 좌우에는 그릇가게와 공예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가게가 즐비하다.

송림로터리로 행하는 중간쯤에 이르면 이 길을 가로지르는 배다리 산업도로 현상이 나온다. 이 산업도로는 인천항에서 금창동을 가로지르고 수도권산을 관통하여 현대제철 아프 중봉로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산업도로 공사는 2003년에 착공하였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유동삼거리에서 송림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완공되면 배다리 현책방 골목이 있는 금창동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면서 문화유산이 밀집한 마을을 분절시켜 일대에 위치한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등의 장소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반대 투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도로에 이미 1,500억 원이 투자되었고, 인천항의 물류처리를 위한 도로가 증설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배다리 일대의 문화와 역사는 오롯이 보존하면서 길은 길대로 흘러가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길만 내주고 근대 문화유산이 밀집한 마을이 사라진다면 그 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인가? 그래서 이 도심 관통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정난에 빠진 인천시가 지하화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현재는 딜레마다.

송림로터리로 가는 길 오른쪽에 동명초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인천의 페스티벌로치로 칭송받는 여류 교육 운동가 박창례 선생과 그 동료 이옥녀 선생의 고매한 교육정신이 서린 학교다. 박창례 선생과 이옥녀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관서야학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을 위해 야학운동을 펼쳤던 선구자였다고 한다.

유정 9번지에 있는 동명학원을 방문하니 새로 건축한 양철 지붕은 반가이 기자를 맞이한다. 건평 33평 운동장을 합하면 이백여 평이라 한다. 19살밖에 넘지 않은 어여쁜 단발양 박창례 양은 공손히 묻는 말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노홍제 씨가 보각사에서 제일강습소를 세워 놓고 1928년 4월에 송필원 씨가 인계, 경영하다가 그 후 박백순 씨가 광명학원으로 개칭하여 경영하다가 29년 9월에 장소를 바꾸어 그 명칭을 '동명'이라 새로 같은 이후 현재까지 내려와 장소 협착으로 현재 교원(여성) 4인이 서로 돈을 모으고 빚을 얻어 이와 같은 깨끗한 건물을 세운 것이라는데 여자들이 경영하는 만큼 모든 것이 조출 단아하여 좋은 감정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 학원의 대부분 여성도는 정미소 선미 여공과 성냥회사 여공들이라 한다. (조선일보, 1932.1.7.)

東郷教育賞受賞者 얼굴

道德情緒 教育 단체
대표 朴 昌 禮 校長

출판인공의료 1995년 1월호 11호



외로움

仁川橋 앞바다
48萬여坪 매립
87년까지 新市街 조성
仁川시는 1월 30일 5만평의 매립공사를
仁川 앞바다 48만여坪에
매립을 오는 87년까지
道主 松林을
仁川 앞바다 48만여

대문서로 ▲祭恭肅
등일부 〓 兪복서에
서로 ▲盤浦동일부
에서 江兩서로 ▲銅
鷺梁津서에서 冠岳
大方동 〓 兩部서에
서로

1. 1700호다. 6가구를 분할한다. 일부는 12월 예정
 2. 200가구 分讓시작
 3. 3월 3주위전수를 받는다.
 4. 4월
 5. 5월
 6. 6월
 7. 7월
 8. 8월
 9. 9월
 10. 10월
 11. 11월
 12. 12월

「下二區」				
한양도사	평원시	24	104	9월
〃	부천시	17	168	
〃	소사시	27	143	10월
〃	〃	32	112	
〃	〃	27	173	
〃	〃	36	142	〃
부평도사	부천시	25	143	
〃	〃	32	60	11월
〃	〃	36	36	
안양도사	부천시	23	144	
〃	부천시	27	172	〃
〃	〃	31	120	
북부도사	부천시	28	170	
〃	〃	32	104	〃
부안도사	부천시	33	238	
〃	부천시	33	132	12월
〃	〃	19	33	
함흥도사	석수시	23	18	
〃	〃	24	36	〃
〃	〃	3	6	

(※입주시기는 건설회사 사
정에 따라 다소 바뀔수도
있음)

독주대 삼가 및 도로
기반시설이 짜임새있고
진 신도시로 조성키로
전역 민간유치로 벌
仁川橋梁바다 48만㎡에
타우진설립 德壽宮을
川제철, 東國제강, 漢
등 4개업체가 참여하
9개월 관할구역
서울시내경철사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인천의 어제와 오늘(<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kkk8155>)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시간.
잠들기 전에 모로 누워 서가에서 집히는 데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어젯밤, 산에서 살아가는
시인의 체한담이었습니다.
비움과 느낌을 시적으로 잘 풀어내는
야생화 같이 곱지만 기암이 느껴지는
글을 만나는 행운을 얻은 것이지요.
공감이 가는 문장마다 줄이 쳐져 있더군요.
책을 읽으면서 그때의 감흥을 간직하러
제가 남긴 흔적이 틀림없었지만
처음 보는 문장 같더군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은 탓이라 고개를 주억거리자니
서글픔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 번 읽거나 한 번 맛 본 음식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계속 새롭고 더욱 강한 즐거움을
찾으려 하겠지요. 시간과 노력과 돈과 경쟁이
자연스레 따라붙을 텐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잠들기 전에 얻은 삶의 지혜입니다.

가을에서 만나는 **맛집**

공기밥 추가는 기본,
라식 부르는 정성스러운
밥상과 으뜸 기장

해동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5월, 꽃게 철이 돌아왔다. 인천에서 손꼽히는 전통의 간장게장집이 몇 군데 있다. 그런데 대부분 비/싸/다.맛 못지않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가격인데 말이다.

이번에 송림로를 건다가 찾아간 **해송**식당은 맛과 가격,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만족도 높은 식당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게장정식이 9,900원이었던 것이 치솟는 물가 덕분에 12,000원으로 올랐지만, 월급 빼고 죄다 오르는 물가를 어쩔 수 있겠냐는 자조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보자.

우선 게장정식에 곁들여 나오는 밑반찬들이 일품이다. 양도 맛도 훌륭하다. 정작 게장이 나오기도 전에 게 눈 감추듯이 먹어치우고, 몇 번을 더 추가해서 먹은 반찬이 있는데, 이름을 붙이자면 **시래기 우거지 된장무침** 정도? 주인 아주머니의 깊은 내공이 깃든 음식으로, 무청과 배추를 일년간 염장한 뒤 소금을 빼고, 새우젓으로 다시 간한 후에 살짝 데쳐서 된장 등을 넣어 무쳐 조리한 것인데, 뜨거운 밥에 쪽 찢어 올린 우거지를 올려 먹으면 밥 한공기는 순식간에 비워진다. 구수하면서도 감칠맛이 그만이다. 그밖에도 궁합 맞는 양배추쌈과 강된장, 몸에 좋은 버섯과 머위를 들깨에 볶아 요리한 반찬도 고소하다. 특히 머위와 들깨는 찰떡궁합이라고 한다. 또, 시중에서 쉽게 먹기 힘든 송어구이는 담백하고 맛있다. 이외에도 감자조림, 배추김치, 열무김치, 미나리무침 등이 한상 가득 차려지는데 골고루 다 손이 간다.



거기에 꽃게탕과 조기매운탕이 1인분에 1만원이다. 같은 재료들, 미나리, 대피, 두부, 청양고추 등이 들어가는데 꽃게탕은 시원하고 깔끔하고, 조기매운탕은 전혀 비린맛 없이, 칼칼하니 개운하다. 꽃게도 조기도 가격 대비 실하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탕 안에 라면사리가 들어가 있다. 아무래도 이 식당이 산업유통센터 단지 내에 있다 보니 젊은 근로자들의 양을 생각한 주인 아주머니의 개인적인 배려로 여겨진다. 정성스러운 밥상에 라면이 흠이 될 수 있지만, 여하튼 맛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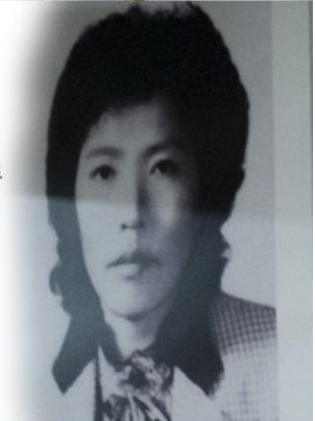
게장은 크기도 적당하고, 짜지 않고 맛있다. 손으로 꼭 누르면 살과 알이 동시에 나와서 계뚜껍에 밥을 넣고 같이 비벼 먹으면 환상적이다. 계뚜껍을 먼저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송**식당에 오면, 공기밥 두 그릇은 기본으로 먹게 될 우려가 있으니, 알아서 조절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뜨끈한 누룽밥도 나오는데, 남은 반찬과 개운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기분 좋은 포만감은 극에 달한다.





개성이 고향인 주인 아주머니는 36년간 송도에서 해송을 경영해오다 3년전쯤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해서 송도가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주말이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뽕잎, 머위, 갖가지 신선한 먹거리들을 공수하러 다닌다. 그래서 이 식당은 토,일요일이 휴무다. 주말에는 갈 수 없고, 평일에만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깐깐한 내공과 깊은 맛, 믿을만한 식자재로 요리한다는 자부심이 남다른 해송식당에, 특히 봄이라 입맛을 잃은 분들이라면 꼭 찾아가 볼 것을 강추하고 싶다. 시나브로 밥 두 공기가 어느새 비워져있을지도 모른다.

@ 주 소 : 인천산업유통센터 2단지 편익상가 B동 지하29호
☎ 전화번호 : 032-588-0024



송림로는 싸리재길이 끝나는 배다리사거리에서 경인철도 굴다리 밑을 지나 배다리3거리 송림오거리와 송림삼거리, 공현사거리를 지나 서구 가좌동으로 가는 장고개길과 만나며 끝난다. 송림로의 출발지점인 배다리사거리 지나는 연도에는 오른쪽으로 창영동 현책방거리가 왼쪽으로는 포목점이 즐비한 중앙시장이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5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유럽 최고의 환경도시, 스웨덴 벡쇼



조경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럽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벡쇼市는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고속열차로 3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벡쇼(Växjö)라고도 불리는 벡쇼의 시민들은 1993년부터 2008년 사이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5%나 줄였다. 1990년대에 이미 시정목표를 '화석연료 없는 도시만들기'로 정하고, 패시브하우스와 통나무구조 가옥 건설, 자전거 도로,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향상, 폐기물 재활용, 바이오연료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벡쇼는 '유럽 최고의 환경 도시(The Greenest City in Europe)'로 손꼽히며 2007년에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상(Sustainable Energy Europe Award)'의 한 부문인 '지속가능 공동체상'을, 발틱해 도시연합으로부터는 '최고의 환경실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벡쇼가 환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은 도시 중심에 위치한 트루멘 호수의 오염을 살리려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했다. 호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벡쇼가 시 전체에 '환경 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를 계기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5~1997년 스웨덴의 환경단체와 손잡고 환경정책을 개발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결과 '화석연료 없는 도시(Fossil Fuel Free)'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도시경영에 '에코 버짓(eco budget, 환경예산)'이라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왔다.

화석연료 없는 도시의 특별한 연료

벡쇼는 1996년 '화석연료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2010년까지 주민 1인당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993년 대비 50%, 2025년까지는 7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목표는 석유 대신 바이오연료를 사용하여 난방용 열 및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수력과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지열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6%를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벡쇼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97%는 바이오연료이며 나머지 3%는 석유인데 이것도 비상용이라고 한다. 도시의 사용연료가 모두 바이오연료라는 얘기이다.

이처럼 벡쇼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화석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때문이다. 화석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반면, 화석연료와 결별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쉽게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벡쇼가 더욱 더 큰 관심을 받는다. 벡쇼는 단순히 화석연료가 아닌 DME(Di-Methyl Ether, 디메틸에테르)¹⁾이라는 다른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벡쇼는 '동네에너지'라는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어느 곳에서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어디선가 수입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이지 못한 방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숲이 많은 스웨덴에서 '나무'라는 동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꿈같은 일은 백쇼시 남동쪽에 위치한 에너지회사 '백쇼에너지(VEAB)'가 가능하게 했는데, 목재회사 등에서 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 찌꺼기 같은 바이오 연료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여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다. 넓은 공장 부지에는 톱밥, 나무찌꺼기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공장 안에 들어서면 기름 태우는 냄새 대신 후끈한 열기에 나무 향이 살짝 묻어나 마치 사우나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1970년 설립된 백쇼에너지는 초기에는 석유로 발전시설을 가동했지만,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대체 에너지에 눈을 떴다. 1983년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시작한 이후 점차 그 비중을 늘려왔고, 2002년부터는 석유 비중을 3%까지 낮춘 바 있다.

음식물폐기물, 철저한 분리수거

백쇼는 매우 철저한 분리수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도 유명하다. 백쇼의 주민들은 최대 20가지 이상으로 쓰레기를 분류하는데, 에너지 저효율 전구와 에너지 고효율 전구, 우유팩, 색깔있는 유리병, 투명한 유리병, 금속 캔, 부드러운 플라스틱제품, 딱딱한 플라스틱제품, 전자제품, 옷, 신문, 포장박스 등으로 세분하여 분리하고, 대부분을 시청 재활용 센터에 갖다 준다.

음식물쓰레기는 단지별로 기계를 구입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짝 말려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에 넣어 분쇄하면 악취없는 커피색 가루가 만들어진다. 이 가루는 일종의 유기농 비료이고 화단에 뿌려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 매주 800리터짜리 쓰레기통으로 8개씩이나 쓰레기를 배출했던 아파트단지에서 2개 분량으로 대폭 줄었고, 아파트단지의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도 8만5000크로네에서 1만8000크로네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까다롭고 번거로운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주민들이 불평없이 동참하는 이유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경제적 이득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자발적인 참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백쇼의 세대수가 전체의 절반정도 된다고 한다.

환경예산, 환경경영

백쇼에서는 2003년부터 도시경영에 '에코 버짓(eco budget)'이라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시 예산의 돈 씹음을 따지듯, 매년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를 철저히 체크하여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사용 계량기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 자신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로 24%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탄소마일리지제도와 같이 한달 에너지 사용량을 합산하여 가장 많이 절감한 사람에게 영화티켓 등의 보상을 주어 시민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기도 했다.

에너지 저소비주택

한편, 백쇼에서는 1994년 도시 가로등을 고효율 전구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여, 건축가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 관련 에너지 기준을 강화하였다.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에 민감해지도록 계량기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시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펼쳐왔고 무료로 에너지 효율개선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백쇼의 시민들은 주택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시멘트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나무를 주재료로 하는 에너지 저소비 주택단지를 시공하기도 했다.

'덜린 사회'

백쇼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32%의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50%가량의 지역총생산이 증가했다고 하니, 백쇼는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화석연료를 멀리하고 환경과 사람을 배려하는 백쇼의 경제는 침체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시장과 지자체 공무원, 시민들이 그

일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벡쇼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시청의 관광 안내에 '전문적인 방문(Technical Visits)'이라는 코너가 있다. 벡쇼로 환경 투어를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벡쇼의 친환경 정책을 보고 배우려고 한다는 반증이다. 인구 82,000명의 작은 도시에는 매년 100개 이상의 견학팀이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게 모두 벡쇼의 친환경 경영 노하우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로 '환경 전문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이나 관련 공무원, 기자들을 지구의 오지(?)까지 방문하도록 한다.

벡쇼는 환경 뿐 아니라 남녀평등과 이민자 차별, 공정한 기회 등 11개 항목으로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나치게 환경도시로서의 발전을 내세우기보다는 진정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시의 인프라와 운영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벡쇼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¹⁾DME는 탄소 수가 가장 적은 에테르이기 때문에, 독성이 적고 환경부하가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DME는 분자구조로 탄소결합을 하지 않으며 산소를 포함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연소성이 우수해서 본질적으로 그을음을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벡쇼市는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고속열차로 3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벡스웨(Växjö)라고도 불리는 벡쇼의 시민들은 1993년부터 2008년 사이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5%나 줄였다.

지속가능발전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5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속가능발전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연구부 조 경 두 선임연구위원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지역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인적자원, 제도, 녹색성장 역량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상생식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통합 수립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정리와 추진여건, 장기비전, 목표설정 등에 대한 선행검토를 위한 것으로서, 인천지역 지속가능발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과 건전한 거버넌스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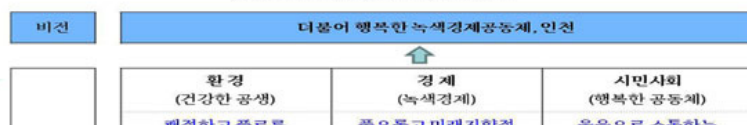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CED)의 결과에 대한 10년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다면,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RIO+20 지속가능발전 UN회의'는 1992년 리우회의의 개최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정치적 책임의식과 실행의지를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녹색경제, 제도적 체제 정립을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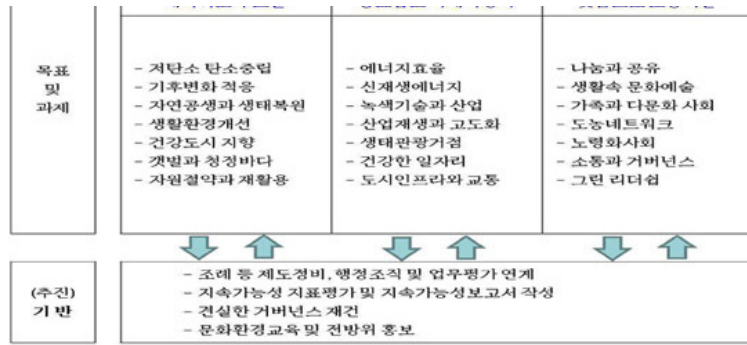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2005년 6월 국정철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천명하고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이 있었고,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이행계획의 안정적 추진과 추진, 점검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1년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 77개의 분야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하였다. 인천에서는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기업, 행정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각 군·구의 기초의제21 추진협의회 또는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인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 부평구는 2011년 11월 16일 '미래부평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한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녹색산업·에너지,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인프라의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전략별로 단위사업을 예산비중으로 분석해보면, 녹색공간 및 저탄소도시 인프라 확충과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조 1,075억원의 사업예산 중 상위 10개 사업의 예산비중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지나치게 도시인프라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균형있는 사업계획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존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하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적절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틀 속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인 녹색성장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과 "경제", "시민사회"라는 3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키워드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지향점을 모은 "더불어 행복한 녹색경제공동체, 인천"이라는 비전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조례 등 제도경비와 행정조직 및 업무평가 연계, 지속가능성 지표평가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견실한 거버넌스 재건, 문화환경교육 및 전방위 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기반"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가하였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안)〉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과 경비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기조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추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통합적 추진체계 및 유관활동 경비가 필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담부서의 인력과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조율 및 전담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별 환경개선효과와 경제적 효율증진효과를 동시에 검토하는 분석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각종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경량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정책수단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과정에 따른 성과자료를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되, 인천지역의 특화된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추진체계 정비와 기능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유지하거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관련 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통합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인천광역시 군·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군·구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군구이행계획,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인천광역시의 산하 공기업에서도 통합경영을 시작하는 시점을 계기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통해 행정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행과제 단위의 논의에서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는 각 부서 사업들 사이의

예산 효율성이 평가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지역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인적자원, 제도, 녹색성장 역량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상향식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5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우리나라와 인천의 녹색성장지표

우리나라와 인천의 녹색성장지표

도시개발연구부 김 정 숙 코빙연구원

녹색성장 개념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기술이나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의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배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모두 균형적으로 충족시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영속적인 유산을 후세에 물려주려고 하는 발전양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9)에서 수행한 저탄소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는 각 지표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산술평균을 산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녹색투입, 프로세스, 산출 측면을 모두 종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OECD 30개국 중 15위로 중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표 1.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의 OECD 국가간 비교결과

순위	투입(40%)		프로세스(20%)		산출(40%)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가중산 술평균	순위	가중산 술평균	순위	가중산 술평균	순위	가중산 술평균	순위
Canada	2.429	22	2.679	21	2.857	20	53	23
Mexico	2.679	15	1.571	30	2.804	23	50.143	25
USA	2.31	27	2.571	24	2.661	26	50.055	26
Japan	3	9	3	14	3.411	8	63.286	8
Korea	2.714	14	2.786	18	3.036	17	57.143	15
Australia	2.214	29	2.571	24	2.839	21	50.714	24
N.Zealand	2.673	16	2.321	26	3.375	9	57.667	14
Austria	3.321	2	3.393	6	3.143	14	65.286	6
Belgium	2.327	25	2.679	21	3.107	15	54.19	21
Czech Rep.	2.125	30	3.071	12	2.571	28	49.857	29
Denmark	3.101	6	3.821	1	3.464	6	67.81	3
Finland	3	9	3	14	3.232	12	61.857	12
France	3.089	7	3.214	11	3.5	5	65.571	5
Germany	3.411	1	3.583	2	3.054	16	66.048	4
Greece	2.605	19	2.714	19	2.911	19	54.984	18
Hungary	2.518	21	2.929	16	2.821	22	54.429	20
Iceland	2.555	20	1.615	29	3.446	7	54.474	19
Ireland	2.346	23	2.929	16	3.321	10	57.055	16
Italy	3.018	8	3.5	4	2.982	18	62	11
Luxembourg	2.325	26	3.571	3	3.75	2	62.886	10
Netherlands	2.839	11	3.5	4	3.321	10	63.286	8
Norway	3.113	5	2.607	23	3.589	4	64.048	7
Poland	2.345	24	2.286	27	1.946	30	43.476	30
Portugal	2.839	11	3.036	13	2.339	29	53.571	22
Slovak Rep.	2.274	28	2.714	19	2.625	27	50.048	27
Spain	2.654	17	3.286	9	2.768	24	56.516	17
Sweden	3.321	2	3.286	9	3.607	3	68.571	2
Switzerland	3.161	4	3.375	7	3.929	1	70.214	1
Turkey	2.625	18	1.857	28	2.696	25	50	28
UK	2.839	11	3.357	8	3.161	13	61.429	13

자료 : 저탄소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지속가능발전 관련지수와 지표로는, 환경지속성지수(ESI)와 환경성과지수(EPI), 지속가능발전지표(SDI) 등이 있는데, 환경지속성지수는 환경·사회·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비교한 것이고, 환경성과지수는 환경개선정도를 계량화한 지수로 국가별 환경개선노력을 평가한 것이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 경제, 사회지표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지속성지수(ESI)는 2002년 142개국 중 136위, 2005년 146개국 중 122위를 한 바 있고, 환경성과지수(EPI)는 2002년 23개국 중 15위, 2006년 133개국 중 42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지표(SDI)는 국가간에 비교가 없었다.

인천광역시 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제도적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2009년 4월 녹색성장 추진방안 마련 실무TF 구성을 시작으로 2009년 6월에는 시 조직에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였고, 2009년 6월에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9년 7월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2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09~13)"을 수립하기도 했다.

기 회 (O)	강 점 (S)	약 점 (W)	기 회 (O)
	. 미래여건에 대한 전략적 적극 대처 . 국내외적 협력 및 정책공조 가능성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연구개발 확대 . 그린-리더십 및 도시브랜드 제고	. 에너지 저효율 산업구조 개편 . 에너지다소비·오염유발업체 재정비 . 대형 신규개발 및 재생사업 추진 . 부족한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계기 . 도시브랜드를 저해할만한 생활환경	
위 협 (T)	. 인천미래발전계획의 대규모 조정 . 항만·물류부문의 에너지수급 개선 . 전력발전시설의 자발적 노력 견인 .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보완·적응 . 할거형 부문정책의 '가운머리' 확립	. 지속가능발전과의 개념상 혼란 . 정책목표 및 추진주체의 혼선 . 계획추진 원동력 유지의 한계 . 성장전략 및 네트워크의 연계 미흡 . 추진기반의 지속성 확보	위 협 (T)
	강 점 (S)	약 점 (W)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12)은 지역별 녹색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평가한 바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녹색경제 잠재력지표, 녹색혁신 잠재력지표, 녹색사회문화 잠재력지표, 녹색환경잠재력 지표를 각각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로 집계한 것이다.



그림 1.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의 지표체계
자료 :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총서, 2010

이 결과에 따르면, 녹색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녹색경제 잠재력과 녹색사회문화 잠재력이 모두 높은 강원도가 1위, 대전이 2위였고, 인천은 15위로 16위를 차지한 울산과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표 2. 지역별 녹색성장 잠재력지수

구분	녹색경제 잠재력지표	녹색혁신 잠재력지표	녹색사회문화 잠재력지표	녹색환경 잠재력지표	종합지수
서울	0.141	0.07	0.156	0.12	0.487
부산	0.12	0.031	0.184	0.095	0.429
대구	0.145	0.032	0.179	0.085	0.441
인천	0.125	0.041	0.182	0.08	0.428
광주	0.159	0.042	0.218	0.098	0.517
대전	0.146	0.117	0.21	0.082	0.555
울산	0.114	0.029	0.186	0.062	0.391
경기	0.174	0.072	0.184	0.082	0.513
강원	0.324	0.026	0.212	0.077	0.639
충북	0.235	0.038	0.177	0.06	0.511
충남	0.164	0.046	0.191	0.046	0.447
전북	0.224	0.026	0.163	0.05	0.463
전남	0.191	0.017	0.198	0.054	0.461
경북	0.245	0.038	0.188	0.052	0.523
경남	0.218	0.033	0.198	0.056	0.505
제주	0.158	0.022	0.193	0.07	0.443
최대	0.324	0.117	0.218	0.12	0.639
평균	0.18	0.043	0.189	0.073	0.485
최소	0.114	0.017	0.156	0.046	0.391

자료 :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총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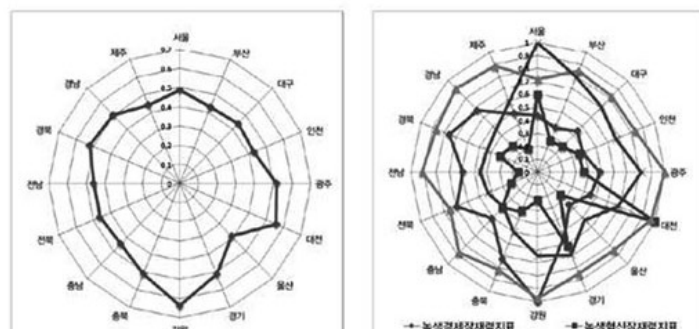


그림 2. 녹색성장 잠재력지수

자료 :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총서, 2010

지난 십년 동안(1999~2009) 녹색성장 개념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기술이나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의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배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모두 균형적으로 충족시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영속적인 유산을 후세에 물려주려고 하는 발전양식을 의미한다.